

울촌산단 입주 희망 기업 갈수록 늘어나

제1산단 86% 분양 마쳐...3블럭도 14개 기업 신청

울촌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919만3천㎡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울촌 제1산단은 분양 가능한 공장용지 436만1천㎡를 우선 분양해 86%인 375만6천㎡의 분양이 완료됐다. 또 분양가능한 잔여부지 60만5천㎡도 18개 기업이 104만6천㎡의 부지를 희망해 높

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초 입주가 가능한 3블럭 33만1천㎡는 14개 기업이 78만2천㎡를 신청했다. 광양만경제청은 6일 투자유치본부장 등 내부위원 5명과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을 포함 10명으로 구성된 투자유치협의회를 열고 입주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투자유치협의회는 ▲고용창출 효과가 커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 ▲컨테이너 화물 창출로 광양항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기업 ▲전후방 연관산업 유발 효과가 큰 기업 ▲신기술·신소재 산업으로 미래 지속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 ▲외국자본 유치기업 및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 등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꼽고 있다. 반면 약취와 분진, 소음을 유발하고 토양·수질·대기오염 등 공해배출 기업, 고용효과가 미미한 기업 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지난 5월 문을 연 순천시 황전면 한우영농법인의 쇠고기 전문매장과 식당가는 주말이면 1천500여명이 몰리는 등 개장 5개월만에 20만명이 넘는 고객들이 찾았다.

순천에 왔으면 한우 맛은 봐야제!

순천 황전 한우직판장 개장 5개월만에 20만명 방문
축산농가-소비자 직거래로 시중가 3분의 1에 판매
인구 270여명 작은 마을...도시 못지 않은 부촌 일궜

추석을 앞둔 지난달 9일 초, 순천시 황전면 괴목리 마을 입구에 위치한 순천황전 한우 직판장에는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 있었다. 이날 직판장에는 추석 선물용 한우(韓牛) 고기를 사러 온 외부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조합 사무실에는 서울 경기 등지에서 걸려온 주문전화도 끊이지 않을 정도였다.



동을 지었다. 이어 지난 5월 문을 연 황전 판매장은 법안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순수 황전 한우를 중간 유통과정을 생략한 산지 가격으로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미국산 저가 쇠고기에 맞서기 위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시스템 구축이라는 정공법을 택한 것. 가격의 거품이 빠지고 품질 좋은 한우 고기를 시중 가격의 1/3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물려들기 시작했다. 일시에 200여명의 손님을 받을 수 있는 한우 직판장 식당은 평일 주말 식사와 주말 및 휴일 점심, 저녁 식사 때에는 손님들이 10~30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분반다. 평일에는 하루 평균 1천200여명, 주말에는 1천500여명이 한우 직판장을 찾았고, 5개월여만인 지난달까지 이곳을 찾

은 손님은 20만명을 넘어섰다. 이 직판장에서는 등심 1등급 600g(1근)을 2만4천원에 구입할 수 있다. 최상급인 1등급 ++는 3만4천원, 1등급 +는 3만1천원이다. 고기를 사들고 식당에 들어가 100g 당 1천원만 내면 각종 반찬과 야채 등이 제공된다. 처음엔 쇠고기 구매와 식당 운영에 대한 불안감에 경계했던 주민들도 하나 둘 생각을 바꾸고 황전 한우를 강원도 횡성, 충남 홍성 한우에 버금가는 명품 한우로 만들기 위해 품질관리와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우영농조합은 정육점과 식당의 수입이 늘면서 주방, 정육, 홀 서비스요원 등 20여명을 인근 주민으로 채용했다. 법인 부채 3억5천만원이 남아 있지만 최소 이윤으로 모두 함께 일하며 살아가자는 취지였다. 이와 함께 2일 순천시에서 열린 노인의 날 행사에 협찬금을 내 놓았고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족 등을 초청할 계획도 세웠다. 황전면 한우영농조합법인의 변신은 쇠고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우 뿐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마진을 없애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우영농조합법인 정태근 총무는 "해남, 무안 등지에서 황전 한우를 벤치마킹하고 있어 앞으로 경쟁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가의 외국산 범람과 고유가 등으로 우리 농업이 벼랑끝에 몰려 있으나 황전면 한우영농조합은 앞으로 다양한 판매 전략을 세워 스스로 돌파구를 개척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061-755-2330) /동부취재본부=지관현기자 light64@

“남도음식문화 큰 잔치에 오세요”

9~13일까지 순천시 낙안읍성 마당놀이·국악공연 등 행사 다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순천시 낙안읍성에서 ‘제 15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가 열린다. ‘남도의 방상과 한국인의 건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전남 도내 22개 시·군에서 추천한 명인들이 만든 음식과 전통주를 맛보고 남도 발효음식 역사관을 구경할 수 있다. 또 축제기간에 마당놀이와 폼바 공연,

음식 마술 퍼포먼스, 국악 공연 등도 감상할 수 있으며, 짬뽕 공예, 길쌈, 천연염색,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직접 할 수 있다. 순천시는 축제장 주변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임시 주차장을 확보했으며, 순천만과 낙안읍성 간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5일 “남도음식문화 큰잔치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먹을거리 등으로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지관현기자 light64@

여수 돌산 갓김치 식약청 HACCP 인증

여수 돌산 갓김치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통과해 인증서를 교부받았다. 여수시에 따르면 돌산 갓김치를 생산하는 여수농협은 지난 9월 HACCP 인증을 신청해 심사 평가결과, 최근 안전한 농식품 인증을 받았다. HACCP는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과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혼합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는 등 각 과정을 중점 관리하는 국제적 위생관리 기준이다. 돌산 갓김치의 HACCP 인증은 여수 오천산단 내 ㈜전라도 백서방 김치에 이어 여수에서는 두 번째로 돌산 갓김치의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 매출 신장과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 기동대’ 떴다

고흥군 변호판 영치 등 강력 추진

고흥군이 고질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10여명의 공무원으로 특별징수 기동대를 구성했다. 고흥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등 차량 관련 체납액이 1만7천여건에 25억7천여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35억원의 70%에 달하고 있다. 고흥군은 이날 중순까지 체납자 주소나

연락처 등 기초자료를 정비한 뒤 고질 체납자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변호판 영치에 나선다는 한편 재산 압류와 경매, 출구금지 등 제재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또 월 2차례 읍면장을 대상으로 한 징수 대책보고회를 열어 징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마을별 담당 공무원에게 징수 목표를 부여하는 등 징수 책임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좋은 수업 실천 앞장 ‘선도교사제’ 운영

순천교육청 초등교사 23명 선발

순천시 초등학교 교사들이 좋은 수업 실천을 통한 공교육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순천교육청(교육장 김종숙)은 지역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고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23명의 교사를 선발해 선도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지난달 30일 순천 남초등학교를 비롯해 13개 학교에서 교과별로 이루어진 선도교사 시범수업에는 관내 1천여명의 초등교사가 참여해 시범수업 공개와 좋은 수업에 대한 열띤 연찬회를 가졌다. 또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창의성 신장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수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공유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光州時報 전남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구례

| | |
|-------|---------|
| 본 부 장 | 김동호 국장 |
| | 주각중 부국장 |
| | 박양규 부장 |
| | 지관현 차장 |
| | 김은종 차장 |
| | 김은종 기자 |
| | 선상근 기자 |

회춘의 '꿈' 파워미카

미카 파워미카는... (text partially obscured)

11월 11일... (text partially obscured)

민들레 영경귀 현

원도명사실리쌍

11월 11일... (text partially obscured)

비밀이 르지... (text partially obscured)

011-649-0874

부동산 대출

부동산 대출... (text partially obscured)

052-374-3020

남성강의힘

남성강의힘... (text partially obscured)

061-908-8111

그리 시... (text partially obscured)

061-908-8111

중고차동차 전자총 매입·판매

중고차동차 전자총 매입·판매... (text partially obscured)

062-651-6006